



미 증시, 중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되며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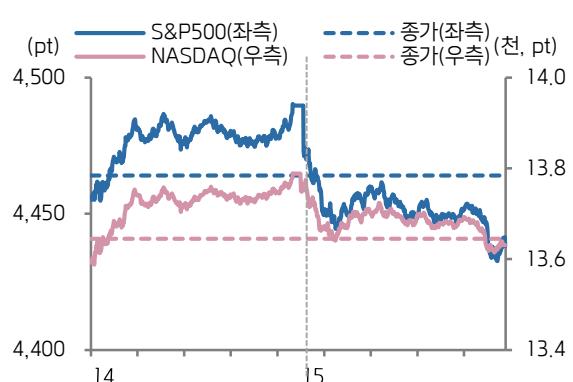
14 일(월) 미 증시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으로 중국 경기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엔비디아 7% 급등하는 등 AI 관련주의 반등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다우 +0.1%, S&P500 +0.6%, NASDAQ +1.1%). 15 일(화)에는 홈디포 실적 호조 및 미 소매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물지표 쇼크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하락 출발한 이후, 피치의 미국 은행 등급 강등 가능성 부각, 장기금리 상승으로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마감(다우 -1.0%, S&P500 -1.2%, NASDAQ -1.1%)

중국 7 월 소매판매는 YOY 2.5%(예상 4.4%, 전월 3.1%), 7 월 산업생산 3.7%(예상 4.4%, 전월 4.4%), 1~7 월 고정자산 투자 3.4%(예상 3.8%, 전월 3.8%)로 예상치 모두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 소매판매 부진은 귀금속 YOY -10.0%, 전자제품 -5.5%, 건축자재 -11.2% 등이 하락을 주도, 산업생산 부진은 중국의 7 월 수출이 YOY -9.2% 감소한 데 기인하며, 1~7 월 부동산 개발 투자 역시 전년 동기보다 -8.5%(예상 -8.1%, 전월 -7.9%) 급락. 또한 국가통계국은 그동안 집계해온 연령대별 실업률을 돌연 공개하지 않고 전체 실업률이 5.3%로 전월(5.2%)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언급.

미국 7 월 소매판매는 MOM 0.7%(예상 0.4%, 전월 0.3%) 기록하며 4 달 연속 증가. 자동차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는 1.0%(예상 0.4%, 전월 0.4%) 기록. 의류 1.0%, 스포츠용품 1.5%, 외식 및 주류 1.4% 증가. 특히 아마존 프라임 데이 매출 호조로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체의 매출이 1.9% 올라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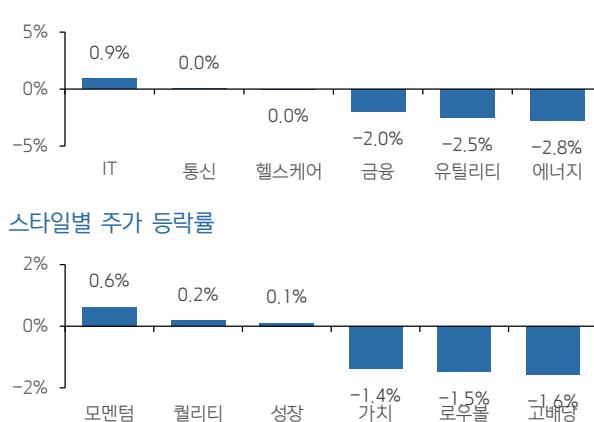
지난주 무디스에 이어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강등을 초래해야할 수도 있다고 경고. "만약 미국 은행업계 점수가 AA-에서 A+로 한단계 더 낮아진다면 JP 모건 까지 포함해 70 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한 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 피치는 지난 6 월에 3 월의 지역 은행 도산에서 드러난 규제 격차 및 금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금융산업의 '운영 환경'점수를 AA 에서 AA-로 하향. 그러나 당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이 수반되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언급. 여기서 A+로 추가로 강등할 경우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현재 AA- 등급인 은행들이 은행업 운영환경보다 높은 등급일 수 없어 자동으로 A+로 강등된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5.41	+0.54%	USD/KRW	1,335.24	+0.37%
코스피 200	343.91	+0.36%	달러 지수	103.20	+0.01%
코스닥	870.28	+0.26%	EUR/USD	1.09	+0%
코스닥 150	1,321.87	-0.22%	USD/CNH	7.32	-0.05%
S&P500	4,283.85	+0.24%	USD/JPY	145.53	-0.03%
NASDAQ	13,276.42	+0.36%	채권시장		
다우	33,573.28	+0.03%	국고채 3년	3.749	+5.4bp
VIX	13.96	-5.23%	국고채 10년	3.900	+8bp
러셀 2000	1,855.40	+2.69%	미국 국채 2년	4.952	-1.5bp
필라. 반도체	3,488.34	+1.28%	미국 국채 10년	4.211	+2bp
다우 운송	14,061.15	+0.51%	미국 국채 30년	4.316	+2.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5.22	+0.05%	WTI	80.99	-1.84%
MSCI 전세계 지수	664.49	+0.26%	브렌트유	84.89	-1.53%
MSCI DM 지수	2,877.97	+0.27%	금	1935.2	-0.45%
MSCI EM 지수	988.49	+0.18%	은	22.66	-0.23%
MSCI 한국 ETF	65.70	+0.88%	구리	366.75	-1.5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1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6.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국내 휴장 기간 동안 발생한 대외 이벤트들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 경기 및 증시 부양 관련 뉴스플로우가 한국 포함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
3. 2차전지주와 중국 소비테마주 간 수급 로테이션 활성화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의 7 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0.7%MoM, 컨센 0.4%) 이후 3 분기 성장을 전망치 상향(5.0%, 기준 4.1%) 등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연준의 추가 긴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 이는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고금리의 여진을 둘러싼 미국발 불확실성이 8 월 이후 증시의 상단을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문제는 신규 호재성 재료들이 뚜렷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매크로 상 미국발 불확실성을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한국, 미국이 과거 대비 중국향 수출 의존도와 중국 증시와의 동조화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발 악재가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관점에서 전일 발표된 중국의 7 월 소매판매(2.5%YoY, 컨센 4.0%), 산업생산(3.7%YoY, 컨센 3.8%) 모두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은 증시의 부담 요인. 컨트리가든(2,250 만달러 이자 상환 실패), 시노오션(2,094 만달러 이자 상환 실패) 등 주요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마찬가지. 또 글로벌 펀드 수급을 제공하는 EPFR 데이터에 의하면, (그간 연속적인 유입에 따른 차익실현도 있겠으나) 8 월 9 일 기준으로 중국(-10.2 억달러) 등 아시아(-18.4 억달러)향 수급이 4 주만에 순유출로 전환한 것 역시 국내 외국인 수급에 비 우호적일 수 있음(4 주 누적으로는 아시아 순매수 +75.6 억달러)

하지만 현재의 뉴스플로우 상 분위기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나빠질 여지가 적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7 월 17 일 -93pt 대로 역대급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8 월 15 일 기준 -54pt 대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기대치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전일 인민은행이 오전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 금리 인하, 오후 MLF(단기 유동성 지원창구)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증시 활성화를 위해 2008 년 이후 처음으로 주식 인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 즉,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경기 기대 + 당국의 대응 강화”의 조합은 증시 입장에서 지수 하단이 추가로 내려가는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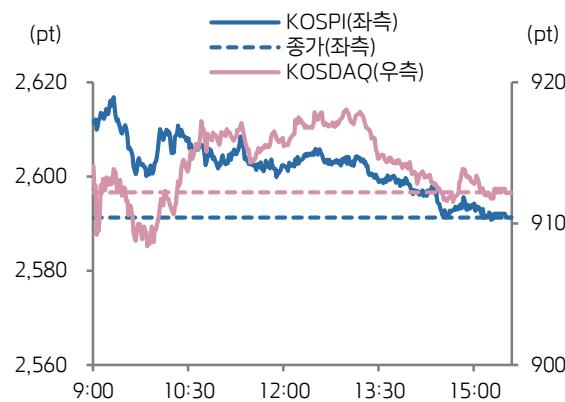
지난 14 일 국내 증시는 연휴 휴장을 앞둔 경계심리 속 개별 수급 요인에 따른 바이오, 2 차전지 중심의 매도 물량 출회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1.2%).

금일에는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 강세, 미국 소비지표 호조 vs 시장금리 상승, 중국 경기 둔화 등 국내 휴장 기간 동안 발생한 대내외 상하방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변동성 확대 장세를 이어갈 전망. 장중에는 대외적으로 중국 관련 뉴스플로우, 중국 증시 및 위안화 환율 변화에, 대내적으로는 2 차전지주들의 FOMO 현상 해소 이후 여진 물량 들을 소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중국 이슈의 경우, 과거에도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경험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추가 부양을 통한 빠르고 탄력적인 경기 반등에 자금을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지양. 그 대신에, 앞서 언급했듯이 최악의 상황은 막아낼 것이라는 이들 정부의 대응 의지가 높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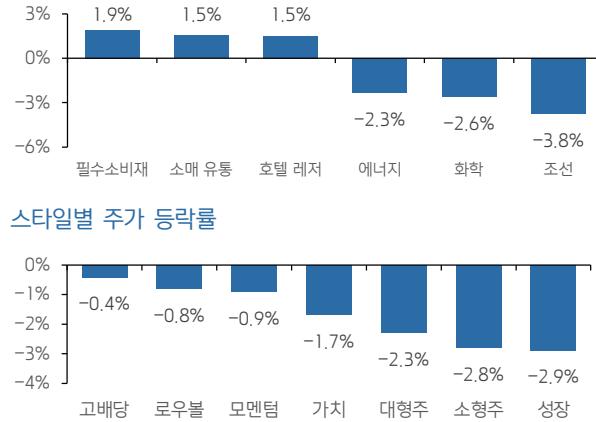
더 나아가, 2분기 실적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12 개월 선행 영업이익 YoY, 6 월말 -15.6% → 7 월 말 -9.2% → 8 월 현재 -4.7%)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중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인한 국내 중국 소비테마주들의 기대감도 잔존해 있다는 점도 감안 시, 결국 이번 중국발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전이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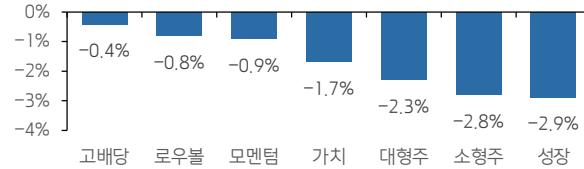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